

도시 브랜드 된 세계 서점·미술관 순례

광주일보 박진현 문화선임기자
'문화 만나러 떠날까?' 펴내



도시를 상징하는 아이콘과 브랜드는 다양하다. 위대한 인물이나 이색적인 건축, 조형물일 수도 있고 역사적 사건이 될 수도 있다.

작금의 문화관 광시대에는 콘텐츠와 스토리를 담고 있는 공간들이 도시의 이미지를 견인한다. 특특 튀는 아이디어와 감각을 입힌 문화시설은 도시의 자산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화관광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국내외 서점과 미술관을 취재한 책이 발간돼 눈길을 끈다.

광주일보 박진현 문화선임기자가 펴낸 '문화 만나러 떠날까?' (엔터)는 세계 서점, 미술관 여행서다. 미술 분야와 광주비엔날레 등을 비롯해 국내외 다양한 문화현장을 취재해 이력에서 보듯 책에는 문화를 바라보는 특유의 시각이 녹아 있다.

책에는 25개의 서점(국내 9·해외 16)과 19개 미술관(국내 6·해외 13)이 등장한다. 저마다의 콘셉트를 자랑하는 서점과 미술관을 '둘러보는' 즐거움은 여느 것과 비교할 수 없다.

한국서점조합연합회에 따르면 2013년 1625곳이던 서점은 2015년 1559곳으로 줄었다. 그러나 특색 있는 동네 책방은 오히려 늘었다. 올해엔 서울 60여 곳을 포함해 전국에 150여 곳이 생겼다. 광주만 해도 '숨', '검은책방 흰책방', '심가네박씨', '소년의 서', '책과 생활' 등 10여 곳에 이를 정도로 동네 책방은 '성업중'이다.

책에는 시인들이 사는 책방 '윌트 앤 시니컬' (서울), 고양이 책방 '슈퍼딩거 서점' (서울), 쪽빛 책 정원 인디고 서원(부산), 소설가와 시인부부의 문학전문서점 '검은책방 흰책방' (광주), 문화씨앗 심어주는 '책방 심다' (순천) 등 이색적인 공간이 소개돼 있다.

해외 서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제각기



코펜하겐 루이지애나 미술관의 '자코메티 갤러리'.

동네 책방·파리 오르세 미술관 등 '핫플레이스' 44곳 소개 "격조와 즐거움 있는 문화쉼터...여행자 설레게 하는 로망"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 꾸민 책방들은 세계인들의 발길을 끈다. 감성 시니어들의 천국 '츠타야 서점' (일본), 일주일에 오직 한 권만 파는 '모리오카 서점' (일본), 영국 클래식 품격 '돈트북스', 세계적 작가들의 숨결이 깃든 '세익스피어 & 컴퍼니' (영국),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의 사원 '셀렉시즈도미니칸 서점' (네덜란드) 등은 문화명소로 자리잡았다.

책방에서 배어나오는 서지향이 깊고 그윽하다면 미술관의 향기는 상큼하면서도 화려하다. 근래의 아트를 매개로 진행되는 여행의 중심지에는 예외 없이 미술관이 자

리한다. "미술관은 격조 높은 예술품과 한 나라의 문화적 역량을 동시에 보여주는 바로미터다. '아트투어'가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잡을 만큼 국내외 유명 도시의 미술관과 박물관은 여행객들의 문화쉼터로 각광받고 있다. 도시의 브랜드로 변신한 미술관은 여행자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로망이다."

책에는 광주시립미술관 하정웅미술관 & 광주시립미술관을 비롯해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 덕수궁관(서울), 미메시스아트뮤지엄(파리), '이우환공간 & 부산시립미술관' (부산), 솔거미술관(경주), 아

리리오 미술관(제주) 등이 등장한다. 저자의 심미안은 국내를 넘어 해외 미술관까지 이른다. 영국 런던의 박도리아 & 알버트 미술관, 데이트 모던 미술관을 비롯해 프랑스 파리의 오르세 미술관 그리고 포피두텐터도 볼 수 있다. 그뿐 아니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반고흐 미술관과 덴마크 코펜하겐의 루이지애나 현대미술관, 독일 뒤셀도르프 인젤름부루이히 미술관 등도 아우른다.

책 곳곳에는 오랜 기간 문화현장을 누빈 기자의 감식안이 투영돼 있다. 직접 촬영한 사진도 수록돼 있어 보는 맛도 즐겁다.

한편 박 기자는 제33회 최은희 여기자상(2016년)을 수상했으며 저서로 '처음 만나는 미국미술관', '도시의 아이콘, 아트센터' 등을 펴냈다. /박성천 기자 skypark@

광주폴리IV 프로젝트 매니저 강필서 건축사 선정

광주폴리IV 기획과 설치 등의 업무를 진행할 프로젝트 매니저가 선정되면서 광주폴리IV가 본격화된다. 광주폴리IV는 광주만의 정체성을 반영할 '관문형 폴리'라는 청사진 아래 2019년 말 완공될 예정이다.

(재)광주비엔날레는 광주폴리IV 프로젝트 매니저에 강필서 건축사(㈜공감동인

건축사사무소 대표·사진)를 선정했다. 전남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석사를 수료한 강필서 프로젝트 매니저는 광주시 공공디자인 심의위원회 위원, 폴리시민협의회 2기, 3기 위원을 역임했으며 광주월드컵 경기장, 광주폴리 등 다수 설계에 참여했다.

그는 광주폴리IV 기본 방향에 따른 작



품 기획과 설계, 제작 설치와 준공 등의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3개년 사업의 광주폴리IV는 2017년도 평가와 준비 단계, 2018년 도 기획과 선입과 기획 단계에 이어 2019년에는 작품 설계, 제작 설치와 준공 등이 실행될 예정이다.

광주폴리IV는 1-2개로 설치해 선택과

집중도를 높이면서 시민 참여형 문명형 폴리로 진행, 광주만의 차별화된 특성을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재)광주비엔날레는 '역사의 복원'을 주제로 한 광주폴리 I 11개, '인권과 공공공간'을 주제로 한 광주폴리 II 8개, '도시의 일상성·맛과 멋'을 주제로 한 광주폴리 III 11개 등 총 30개의 광주폴리를 광주 전역에 설치하면서 광주 도시의 경관을 바꾸고 있다. 문의 062-608-4264.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남도 수채화 흐름 속으로

광주·전남 수채화협회, 내년 1월 13일까지 하정웅미술관

남도 수채화의 다양한 모습을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광주·전남 수채화협회가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전승보) 2018 미술단체 초대전에 선정돼 내년 1월 13일까지 하정웅미술관에서 단체전을 갖는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회원뿐 아니라남도 수채화계의 맥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원로·중진 작가들의 작품도 함께 전시, 의미를 더한다.

광주·전남수채화협회는 우리지역에서 활동하는 수채화 작가들의 창작활동 증진과 남도수채화의 발전을 위해 결성된 미술단체로 2001년 창립, 매해 전시를 통해 미술 저변 인구 확대에 기여해왔다.

'남도의 빛·광주·전남 수채화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우리 지역 수채화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전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출향 작가들과 현재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장년 작가들의 작품을 한자리에 감상할 수 있다. 또 작가들이 걸어온 중요한 기록들과 시대별 흐름에 따라 원로 작가부터 중견, 청년작가들의 작품을 선보여 남도의 수채화를 한 눈에 파악



송용 작 '청명한 날'

할 수 있는 전시로 기획됐다.

전시에는 김효삼·김근희·권진용·김수옥·김종안·김중호·류신·설상호·송정희·오관영·이준성·전병문·조숙·한부철·한태희 작가 등 회원들이 작품을 출품했으며 양규철·김기수·송용·정우범·이장환·서기문·양성모·정시영·박진우 작가 등 원로·중진 작가들도 초대했다. 또 배동신·강연균·조진호 화백의 아카이브 자료와 인터뷰를 전시, 남도 수채화의 원류와 미래에 대해 탐구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광주시립미술관은 지역 미술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미술단체를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있으며 올해는 국제장애인미술협회인문학회와 광주·전남수채화협회를 초청했다. 문의 062-613-5390.

/김미은 기자 mekim@

'경목회' 목향 문순태 시에 퍼지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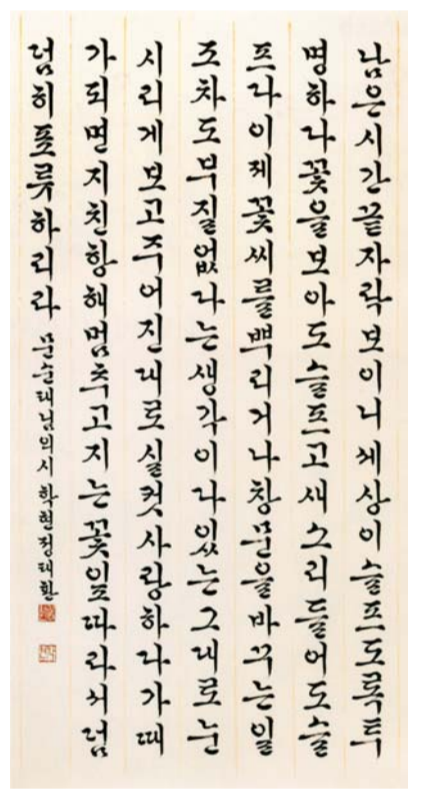
19일까지 메트로갤러리

경목회(景墨會·회장 정태환) 제9회 서예전이 오는 19일까지 광주시 동구 금남로 4가역 메트로갤러리에서 열린다.

'생오지 생각'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문순태 작가의 '시'를 서예로 재조명 해보는 자리다. 회원들은 이번 전시를 위해 문순태 작가가 운영중인 생오지 문예창작촌을 방문하고 다채로운 시를 마음에 담은 후 서예로 표현했다.

1986년 경향서예연구원을 개원한 경현(景軒) 문재평 선생에게 가르침을 받은 경목회는 1999년 결성후 이듬해 남도 예술회관에서 첫번째 전시회를 열었으며 이후 모두 8차례 단체전을 진행했다.

경현 선생은 '생오지 생각'을 찬조출품했으며 김선하·권영원씨 등 70명의 회원들은 '개방초췌', '회순 적벽' 등 문 작가의 작품을 비롯해 '관동별곡' 등 120여편의 작품을 내놓았다. 문의 062-226-8056. /김미은 기자 mekim@



정태환 작 '시간의 끝에 서서'



130년 전통 독일 지멘스 보청기

첫째 .한 달 착용후 불만족시 100% 환불

셋째 .4개지점 어디서든 A/S 및 소리조절

둘째 .보청기정부지원금 131만원 신청

넷째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50% 할인

상무지구: 376-1010 / 북구말바우: 268-9001 / 광산·수완: 954-1030 / 전대의대: 430-8801

2018-2019
신양파크호텔

겨울축제

기간: 2018.12.1(토) ▶ 2019.2.28(목)

축제 1 객실 겨울 패키지

객실 리모델링 기념
60% DC

축제 2 1층 레스토랑 "티파니" 감사축제

커피 3,000원
돈까스 코스 18,000원
안심스테이크 코스 50,000원

축제 3 신양파크호텔 사우나 이용권 증정

1층 티파니 이용고객 ₩15,000당
사우나 이용권 1매 증정
(연회장 및 조식 이용 고객 제외)

신양파크호텔 예약문의 ☎ (062)228-8000, 221-4101